

추석 명절 추모 가정예배 순서

주후 2025년 10월 6일(월) 아침

사회 | 담당자

묵	도	고	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	다 함	께
찬	송		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(찬송가 559장)	다 함	께
기	도			가	족 중
성경봉독		벤전 1:1-6		가	족 중
추모의 말씀		'꼭 기억하세요!'		사	회 자
찬	송		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(찬송가 492장)	다 함	께
추모사		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		가	족 중
기	도		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	다 함	께

성경말씀 | 벤전 1:1-6

-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, 갈라디아, 갑바도기아,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
-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
-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
-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
-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
-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

꼭 기억하세요! (벧전 1:1-6)

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슬픔입니다.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

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“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”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

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1.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! [1, 2절]

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?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“나그네”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. 왜 우리가 나그네일까요?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.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지금의 슬픔은 여행길에서 잠시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

2. 성도의 목적지를 기억하세요! [3, 4절]

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?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. (4절) 왜 하늘에 간직하셨을까요? 하늘나라가 곧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. 여행하다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아픔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3. 약속의 확실성을 기억하세요! [5, 6절]

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(6절)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.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.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

지구촌교회 제공